EMERiCs 이슈분석

브렉시트가 체코에 미치는 영향과 체크시트(Czexit) 발생 가능성 전망

Hana Šedová Professor Tomas Bata Univeristy

₩ 주요 내용

- □ 영국의 브렉시트는 체코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체크시트 (Czexit)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 메데아 리서치(Agency Medea Research)가 제작한 설문지를 토대로 2016년 7월 더위크(The Week)지(紙)가 수행한 체코 국민의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8%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47%는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힘.
- □ 브렉시트는 체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브렉시트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문) 대외경제정적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ęp.go.kr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항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브렉시트(Brexit)의 개요

-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이번 선거는 향후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임.
 - 브렉시트는 "영국의 탈퇴(British exit)"의 축약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가 치러짐.
 - 이번 국민투표는 통화를 포함한 국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그 여파로 영국 파운드화 의 가치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
 -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및 이민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주 장을 펼쳤음.
 - 영국은 유럽연합 통화동맹 및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유로화 대신 독자적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 국경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였음.
 - "탈퇴"를 지지하는 세력은 유럽연합의 관료주의가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EU의 법률과 규제가 영국의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
 -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Mohamed El-Erian)은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경제적 취약성과 인공금융시장(artificial financial markets)에 큰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 브렉시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시간에 따라 변동해왔음.
 - 그러나 6월 23일 국민투표는 지난 수 년 간 영국이 누려왔던 유럽과의 경제적 협력과 무역, 파트너십 관계가 없어도 영국이 생존할 수 있다고 유권자들이 믿고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브렉시트는 영국 내에서의 스코틀랜드 지위 문제와 결부됨.

2 체크시트(Czexit)와 체코 공화국

- ▶ 영국의 브렉시트는 체코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체크시트(Czexit)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체코 역시 영국의 행보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영국을 따라 체코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많은 논쟁과 주장, 의견이 존재함.

- 그림 1은 메데아 리서치(Agency Medea Research)가 제작한 설문지를 토대로 2016년 7월 더위크 (The Week)지(紙)가 수행한 체코 국민의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줌.
 - 이 설문조사는 약 5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수도 프라하 주민이었음.
 - 응답자 중 48%가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47%는 잔류를 지지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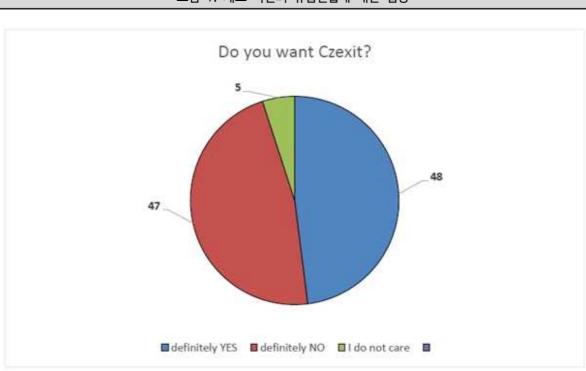


그림 1. 체코 국민의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

자료: http://www.tyden.cz/rubriky/byznys/cesko/chteji-cesi-czexit-exkluzivni-pruzkum-pro-tyden_390185.html. (2016.07.11.)

- 브렉시트가 유럽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응답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내 독일의 입지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응답.
 - 43%의 응답자들은 유럽연합이 해체되는 중이라고 답함.
 - 경제적 측면에서 응답자들은 브렉시트가 경제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응답함.
- 브렉시트에 대한 체코의 반응과 체코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움.
- ▶ 브렉시트는 체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유럽국가들 역시 브렉시트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체코 내에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는 측과 탈퇴를 주장하는 측이 존재하며, 두 진영을 비교해 볼 때 탈퇴진영이 언론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한 예로 탈퇴진영 내 일부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의회에 체크시트를 요청하는 서한을 요청 사유 와 함께 준비한 바 있음¹⁾
- 일부 체코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위한 도구로 체크시트를 이용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와 같은 인물은 그의 홈페이지²⁾를 통해 체크시트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체크시트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함.
- 유럽연합 의회의 체코 의원인 얀 자흐라딜(Jan Zahradil)은 "체코 공화국은 유럽 내부 시장의 일원 이며, 체코 수출품 중 82%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체코 경제의 성장은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
- 브렉시트는 체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됨.
 -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여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증권(채권 및 주식) 가격의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순이익은 98% 감소, 2천만 유로로 하락함.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영향임.
 - 독일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브렉시트는 향후 독일, 특히 이민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영국의 신임 총리인 테레사 메이는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정상들을 만났으며 이어서 2016년 6월 27일에는 체코의 이웃 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정상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만날 예정임.
 - 이들 국가 정상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자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영국과 가장 가까운 무역 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견해와는 다르게, 몇몇 정상들은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의 개혁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간주함.
 - 유감스럽게도 메이 총리는 체코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점이 체코의 정치적 실수로 인한 것인 지는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전망 - 어떤 국가가 영국의 뒤를 따를 것인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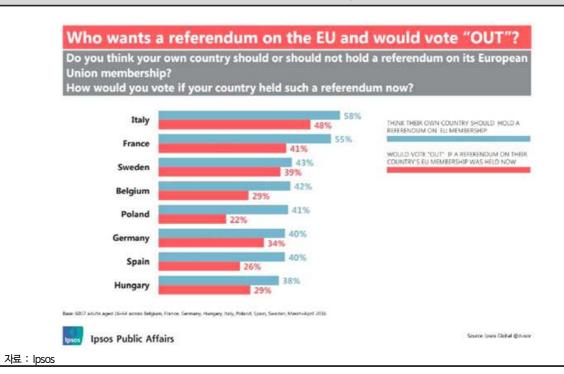
¹⁾ http://www.czexit.net/

²⁾ http://www.tomio.cz/aktuality/czexit/

브렉시트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 유럽연합 회원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유럽의 포퓰리즘 세력들이 브렉시트를 승리로 여기고 다른 국가에서의 국민투표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 사람들은 어떤 국가가 영국을 뒤따라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 오늘날 유럽연합의 안정적 존속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함.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이미 유럽 국가들에게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는 지속적으로 확산
 - 번브리(Brunbrae) 그룹의 회장인 짐 멜론(Jim Mellon)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은 유로화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유로화는 불안정하다. 독일 통화로서의 유로화는 과소평가되어 있고 프랑스 통화로서의 유로화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나는 현재 존재하는 방식으로의 유로화는 3-5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 향후 어떤 국가가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치를 것인지, 어떤 국가가 유럽연합에 잔류하고 어떤 국가가 탈퇴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임.

그림 2.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



- 그림 2는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해당 국가 국민들이 지닌 유럽 연합 회원자격에 대한 생각을 보여줌.
 - 프랑스: 프랑스는 프렉시트(Frexit,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의 제일선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임.
 - · 프랑스 국민전선(The French National Front Party)의 지도자인 마리 르펜(Marine Le Pen)은 브렉시트를 유럽 전역의 민족주의와 국가 자주권 운동의 거둔 승리라고 평가함.
 - 이탈리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진행될 시 가장 큰 호응이 예상되는 국가임.
 - · 브렉시트 결과가 발표된 지 몇 시간 뒤, 북부연합(the Northern League) 총재인 마테오 살 비니(Matteo Salvini)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입장을 반복함.
 - · 취약한 이탈리아 금융 분야는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의 갈등 요소임. 이탈리아 정부 는 금융 분야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고자 하지만 현 유럽연합 규정 상 긴급구제조치는 주주들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시행될 수 없음.
 - · 이 측면에서 현재 이탈리아가 직면한 문제는 주주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임.
 - 그리스: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Grexit)는 브렉시트라는 단어보다 먼저 만들어짐.
 - · 그리스에서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만,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금융 관계 는 탈퇴 시도에서의 장애물임.
 - · 현재 그리스는 IMF에 320억 유로, 유럽중앙은행에 200억 유로의 채무를 지니고 있음.
 - 스코틀랜드: 2014년 치러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 스코틀랜드 인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음.
 - · 한편 일부 지도자들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촉구함. 브렉시트는 스코 틀랜드 독립투표의 재실시로 이어질 수 있음.
 - 덴마크와 네덜란드 역시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임.
- 신임 영국 총리인 테레사 메이는 2016년 7월 27일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우리가 유럽연합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유럽 전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며, 브렉시트는 이런 협력관계를 강화할 기회이다. 우리는 유럽연합 밖에서 영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만큼 영국이 떠난 이후의 유럽연합이 강하고 성공적이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피초 총리는 "우리는 그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럽 정치 체제의 더욱 심한 분열과 불안정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답함.
- 유럽 지도부는 진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국민투표 진행은 시간문제로 보임. 유럽 통합 회의파 운동은 계속 성장하고 있음.EMERiCs

출처

- http://www.investopedia.com/terms/b/brexit.asp%2025.07.2016 July 25, 2016.
- http://bit.ly/2aNfJ57
- http://www.czexit.net/
- http://www.tomio.cz/aktuality/czexit/
- http://bit.ly/2bkzWuA June 20, 2016.
- http://bit.ly/2biA94m July 28, 2016.
- http://bit.ly/2bha8kc July 29, 2016.
- http://bit.ly/2aCJkwD, Aaron Hankin, July 8, 2016.
- http://bit.ly/2bha8kc July 29, 2016.